

사생활 무단으로 촬영한 선수들의 상선을 조처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명동동원명IC 영수순 브로드 캐시)
- 무전시 9월 이후 불법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dynasty.co.kr 0801 320-7700

SK 윤길현 'KIA전 욕설 파문' 확산

“10년 이상 선배들에게 어찌 그럴 수 있나”

‘야구팬들 단단히 화났다’

지난 15일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문학구장 경기에서 야기된 윤길현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KIA-LG 트윈스와의 광주 홈경기에서도 빈발 시비가 일어나면서 이대형의 ‘사인 훔쳐보기’와 임준혁의 ‘폭행’을 놓고 양 팀 팬들이 첨예한 감정 싸움을 벌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KIA-LG 팬들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던 지난번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SK와 야구팬들의 대립구도까지 형성되면서 파장도 일파만파다.

범이었다.

최경환과 윤길현의 나이 차이는 11년. 꾸지람을 하는 이종범에게 대들던 윤길현은 한바탕 소동이 지난 간 후 최경환에게 삼진을 뺏았지만 욕설을 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와 팬들을 실망시켰다. 게다가 덕 아웃에서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 카메라에 잡혀 팬들의 분노가 커졌다.

곧바로 양팀 홈페이지와 KBO 홈페이지에는 윤길현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고, 인터넷 서버가 다운됐던 SK의 홈페이지는 17일부터 임시 패쇄된 상태다. 사건이 있은 후 구단 홈페이지에 윤길현의 이름으로 된 사과의 글이 올라왔지만 팬들은 구단 측에서 작성해 올린 글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BO 홈 페이지에 비난의 글 쇄도

2군행 조치 불구 팬들 분노 더 커져

사건의 발단은 ‘무관심 도루’였다.

0-9으로 크게 뒤지고 있던 6회 초 좌전안타로 출루한 KIA 김원섭이 배터리의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관심 도루로 2루까지 진루했다. 김원섭은 장성호와 최경환의 땅볼로 홈을 밟았고, 이에 SK 투수 레이번이 불만을 털어놓다가 최경환과 언쟁을 벌였다.

8회 초 다시 충돌이 벌어졌다. 2사 후 볼넷으로 출루한 KIA 이재주가 무관심 도루를 하자 SK의 윤길현이 타석의 최경환에게 빈볼을 던졌다. 문제가 커진 것은 그 이후 윤길현의 행동이었다. 최경환이 빈볼에 대한 항의로 마운드를 올려보자 윤길현은 침을 뱉은 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손짓을 하며 타석으로 걸어 내려왔다.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경기장으로 달려나온 선수들은 다른 아닌 최고참 이중

사건이 커지자 이종범·최경환이 나서 줘는 후배에 대한 응시를 구하기도 했지만 팬들은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좀처럼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KIA 팬들은 지난 17일 두산과 SK의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을 찾아 윤길현의 행동을 질타하는 프랑 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11-0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SK는 성난 팬들이 SK 버스를 가로막으면서 조용히 뒷문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팬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자 SK는 18일자로 윤길현을 2군으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야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독보적인’ 1위 SK가 이번 사태로 맞이한 팬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더 고개를 숙여야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욱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잠실야구장 두산-SK전. 외야 관중석에서 KIA 팬들이 최근 SK 윤길현의 빈볼 사태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윤길현은 지난 15일 문학 KIA전에서 KIA 타자 최경환에게 빈볼성 공을 던진 뒤 도발하는 듯한 표정과 행동이 TV중계 화면에 잡혀 논란에 휩싸였다.

“이승엽 1군 복귀 가능성”

日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보도

2군에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복귀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 인터넷판은 18일 “이승엽에게 1군 승격 기회가 왔다”며 “21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소프트뱅크와 경기부터 이승엽이 대타 요원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요미우리 구단이 외국인 투수 에이드ريان 번사이드를 18일 오릭스전에 등판시킨 뒤 등록 말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대신할 외국인 선수로 이승엽을 거론했다.

시노즈카 가즈노리 요미우리 타격코치는 “2군으로부터 좋은 보고는 없지만 (이승엽 승격은) 여러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내일 독일-포르투갈 8강전

발라크 VS 호날두 자존심 대결



‘2006 독일 월드컵 3-4위전 패배를 설욕하고 8강 문턱을 넘겠다(포르투갈). 이번 조별리그 부진을 만회하고 반드시 준결승에 오르겠다(독일)’

‘유럽의 브라질’ 포르투갈과 ‘전차군단’ 독일이 20일(한국시간) 오전 3시45분 스위스 바젤 상크트 야콥파크에서 2008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4강행 티켓을 놓고 맞붙는다. 포르투갈은 안방에서 개최한 유로2004 결승에서 그리스의 거센 돌풍에 0-1로 희생돼 사상 처음으로 앙리틀로네편을 들어올릴 기회를 날렸던 아쉬움이 남아 있다. 독일은 2년 뒤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 0-2로 달미를 잡힌 뒤 3-4위전에서 포르투갈을 3-1로 몰리쳐 3위로 체면치레를 했다.

포르투갈로서는 독일 월드컵 완패를 안겼던 독일에 진 빚을 갚을 좋은 기회인 셈이다.

통산 상대전적은 15차례 싸워 독일이 7승5무3패로 우위를 점했으나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포르투갈 활약이 돋보였다.

‘명장’ 루이스 펠리프 스콜라리 감독이 지휘하는 포르투갈은 A조에서 터키를 2-0, 동유럽 강호 체코를 3-1로

독일 “조별리그 부진 말끔히 씻겠다” 포르투갈 “2006년 월드컵 패배 설욕”

완파하고 일찌감치 8강 진출을 확정했다. 마지막 3차전이던 공동 개최국 스위스와 경기에는 주전들을 빼는 바람에 0-2로 졌지만 조 1위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독일은 B조에서 폴란드를 2-0으로 꺾고 기본 좋게 출발했으나 크로아티아에 1-2로 달미를 잡혔고 최악의 체 오스트리아에 1-0 진패승을 거둬 천신만고 끝에 8강에 합류했다. 이번 대회 예선 12경기에서 35점을 폭발시켰던 독점포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4년 전 우승 좌절을 딛고 처음 정상에 도전하는 포르투갈과 역대 최다인 3차례나 이 대회를 제패했던 독일 모두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해 불꽃 튀는 화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독점 기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대포알 솜을 장착한 미하엘 발라크(첼시) 간 자존심 대결.

호날두는 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더블 우승을 이끌고 득점상을 휩쓴 반면 발라크는 호날두의 맨유에 두 대회 모두 우승컵을 넘겨줬다.

둘은 나란히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한 골씩을 사냥했다. 호날두는 체코와 2차전에서 현란한 드리블과 정교한 크로스, 무회전 프리킥을 뽐내며 1골 1도움 활약으로 승리에 일등공신이 됐고 발라크도 오스트리아와 3차전 결승골로 독일을 8강으로 이끌었다.

포르투갈에는 호날두 말고도 브라질 태생인 미드필더 데쿠와 골 넣는 수비수 페페가 버티고 있다.

독일에도 이번 대회 세 골로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루카스 포를스키와 장신 공격수 미로슬라프 클로제가 포르투갈전 골 사냥을 버리고 있다.

이와 함께 엔스 레만(독일)과 히카르두(포르투갈) 간 수문장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佛 그리고 기사회생



프랑스 상대 2-0 승...8강 진출 네덜란드, 루마니아 꺾고 3연승

월드컵파인 이탈리아가 프랑스를 꺾고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죽음의 조’에서 극적으로 살아 남았다. 2006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는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레치그루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전반 25분 안드레아 피를로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 17분 다니엘레 데로시의 추가골로 10명이 싸운 프랑스를 2-0으로 눌렀다.

첫 승을 올린 이탈리아는 1승1무1패가 꽤 같은 시간 선두 네덜란드에 0-2로 패한 루마니아(2무1패)를 제치고 네덜란드(3승)에 이어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독일월드컵 준우승국 프랑스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2패, 조 최하위로 마감해 체면을 구겼다.

전반 24분 이탈리아 루카 토니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서자 수비수 에릭 아비달이 뒤에서 따라들어가며 반칙을 해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아비달은 바로 퇴장당했다. 이탈리아는 전반 25분 피를로가 차분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프랑스의 꿈이 완전히 짓밟힌 것은 후반 17분. 미드필드 정면에서 열린 이탈리아의 프리킥 찬스에서 데로시가 때린 강력한 오른발슛이 벽을 쌓고 있던 앙리의 발에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탈리아는 D조 1위를 확정지은 스페인과 8강에서 격돌한다.

‘오렌지군단’ 네덜란드는 스위스 베른의 스타드 드 스위스에서 열린 루마니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9분 클라스 안 훈탈라르, 42분 로빈 판 페르시의 연속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탈리아(3-0 승), 프랑스(4-1 승)를 잇따라 대파하고 일찌감치 조 1위와 8강행을 결정했던 네덜란드는 3전 전승으로 막강 화력을 뽐내며 9득점을 올렸고 단 1골만 내줘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18일 벌어진 ‘유로 2008’ 이탈리아-프랑스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루카 토니(가운데)가 프랑스의 윌리엄 갈라스(왼쪽)와 장 알랭 보움송(오른쪽) 사이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가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